

오피니언

월/요/광/장

고영진



며칠전 초청장 하나를 받았다. 안동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유교문화박물관을 개관하니 초대한다는 내용이였다. 한국국학진흥원은 한국학 자료의 조사·수집과 이의 체계적 관리 및 연구·보급을 목적으로 1995년 설립된 기관이다. 초창기 활동은 미미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으로 이제는 수도권에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어깨를 겨룰 정도로 성장하였다. 특히 유교문화에 대한 연구와 자료 수집에 집중하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록을 목표로 목판 10만장 수집운동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한국국학진흥원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필자는 부러운 마음이 없지 않다. 호남지역에는 아직 이러한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이 지역은 박정희정권 이후 수십년간 많은 경제적·사회적 차별을 받아왔다. 김대중정권이 들어서면서 조금 나아졌지만 상황이 크게 개선된 것은 아니었

다. 지난 달 광주상공회의소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광주·전남지역은 3%인 30개사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문의東西 격차도 문제다

그러다보니 지금도 많은 인재들이 광주·전남을 떠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이 지역 인사들은 이를 막기 위해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는 등 인간 힘을 쓰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때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한국전력의 유치를 강력히 원해 성사시켰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호남은 경제적 격차보다도 더 걱정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타 지역과의 학문적 격차이다. 지난 수십년간의 경제적 차별은 일자리를 줄여들게 한 것

이 아니라 이 지역의 학문, 특히 기초학문의 재생산 기반을 매우 취약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최근의 신자유주의정책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필자의 전공인 역사학의 예를 들더라도 이제 호남지역에 사학과 또는 역사학 전공이 남아있는 곳은 국립대를 제외하고는 조선대와 원광대 뿐이다. 그나마 이 두 대학 역시 대학원과정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다. 결국 호남지역에서 역사학 관련 전문연구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곳

은 전남대와 전북대·목포대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수도권에 차치하고 영남권과 비교해도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러한 학문적 격차는 정부로부터 받는 연구비 규모에서도 잘 드러난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2000억 가까이 지원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제1기 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의 경우 총 625과제 중 서 울이 316과제(50.5%)로 제일 많이 지원 받았고 영남이 115과제로 18.4%, 호남이 55과제로 8.8%의 점유율을 차지하였다. 호남이 영남의 반도 안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도 호남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공장을 짓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이 지역 학문의 재생산 기반을 회복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남의 한국국학진흥원과 같은 기관, 즉 호남학연구원의 설립이 시급하다. 호남학 및 지역학 관련 기초자료의 수집·정리와 호남마을지 편찬, 호남학자료센터의 설립, 호남학 관련 문화콘텐츠 개발 등은 개별 대학들이 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이다.

호남학연구원이 설립되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함께 큰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성공 여부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갖추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호남의 역사와 문화, 사상과 예술이기 때문이다. 기본이 제대로 안된 것은 그러면 것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기초학문에 대한 이 지역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광주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北 미사일 발사시험, 우리 정부 입장은 뭔가

세계가 월드컵 축제무드에 젖은 이 시각 극동-북태평양에 아연 긴장이 감돌고 있다.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시험 가능성 때문이다. 1998년 8월 북한이 전격적으로 대포동 1호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함으로써 일본열도가 '방어수단 확보'논쟁으로 들끓고 미국은 미사일 방어체계(MD)를 가속화하는 등 파장을 불러 일으킨 데 이은 새로운 위기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긴장된 시점에 우리 정부가 확고한 입장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의아함을 느낀다. 물론 이번 위기에 대해 미·일 당국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사실관계'확인만은 급급한 군사정보 수집수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이 미사일 연료를 주

르, 우리정부는 '발사가 확인되면 국가 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한다'는 느긋한 태도를 보이는 건 잘못이다.

정부의 이같은 '여유'는 대포동 2호 미사일이 전격적으로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시험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판만 한반도에 사용될 무기는 아니라는 판단이 깔려있고 모른다. 그러나 사태는 단순하지 않다. 당장 미국은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이를 요격한다는 입장이다. 요격은 한대공 요격미사일을 사용할 수도,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일본이 이지스함에서 요격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쏘아 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북한이 요격기들을 출격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만약 이같은 일이 벌어지면 극동-태평양지역은 순식간에 전운에 휩싸일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국민반응함으로써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시키는 건 잘못이다. 그러나 국민의 운명이 걸린 중대사태에 계속 입을 닫고있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

民生외친 여당, 6월국회서 '실천' 보여라

오늘부터 12일간 일정으로 임시국회가 열린다. 5·31 지방선거후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는 17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으로 입법부가 새 진용을 갖추고 있는 임기 2년을 시작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금융산업구조 개선법과 비정규직 법안, 로스쿨 법안 등 경제 및 민생분야에서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다 심상치 않은 국내외 경제 여건도 여·야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여야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정국 주도권 다툼을 벌일만큼 나라사정이 한가하지 않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 역시 기대보다는 격정적 앞선다. 우선 노무현대통령의 국회연설이 취소되는 등 출발부터 모양새가 좋지 않다. 무엇보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온 사립학교법 제개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사학법 제개정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한 여타 법안들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대승적 차원에서 여당의 자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열린우리당은 지방선거 이후 민생을 강조해왔다. 환골탈태를 다짐했던 여당 내부의 반성이 실천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야당 뿐만 아니라 청와대와외의 갈등을 현명하게 극복해야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국정정에 반영할 수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말바다 민심을 정철허 반영하지 못한다면 여당의 설자리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 피눈물 흘리지 않는 공허한 개혁정책에 끝까지 날 것이 아니라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변신을 기대한다. 지방선거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던 부당성 정책에 있어서도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민생 국회를 여는데 여야 구분이 따로 있을 수 없다. 한나라당 역시 지방선거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소모적 정쟁을 없애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오진수

지난 6월 8일부터 9일까지 속초 주택공사 연수원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한 혁신도시기본구상 중간보고 및 합동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광주·전남의 공동혁신도시 기본구상안 발표를 듣고 이 지역으로 이전해 올 기관의 이전실무 담당자로서 '과연 이 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을 것인가? 이전기관 및 그 곳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이주와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새로 조성된 혁신도시가 지역경제의 혁신거점 역할을 충실히 해 낼 수 있을 것인가?'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

나주시 금천면 일대에 들어설 공동혁신도시 기본구상안은 양 지자체의 이견

있는 나주 혁신도시는 공동 혁신도시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정부 지원이나 각종 배려에서 타 혁신도시의 2배+α가 되어야 함에도, 정부나 사업 시행자로부터 단순히 1개의 혁신도시가 줄어든 수적 감소로만 취급당하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되었다.

또 각각의 조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서로의 이견을 조율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광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등 3개 지자체의 지원단 조직을 통합하여 단일 조직으로 재편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와 함께 이전기관의 직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문제는 광주시나 인근의 기존 시설들을 활용할 계획에서 벗어나, 유아에서부터 초·중·고등학교

독자마당

지속적인 안전교육만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여름철 수영 미숙 등으로 인한 익사 사고를 비롯, 전곡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가 선전국에 비해 8배나 많다고 한다. 경찰관의 한 사람으로,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점, 죄송스러울 뿐이다. 여름 피서철이면 전국 곳곳에 위치한 계곡, 유원지 등에서 어린이 익사사고가 발생한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최근 스포츠를 설치하고 캠페인을 벌이면서 줄어드는 형편이지만 익사사고 사망률은 변함없이 증가하고 있다.

지속적인 예방과 안전 교육이 필요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우선 관계부처는 전국 위험 지역을 파악

한 뒤 이들 지역에 안전요원(경찰·교육·행정·119대원·자율방범대원·시민 단체 등)을 반드시 배치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예방 교육도 중요하다. 여름 방학에 들어가기 전 전국 초등학교·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육시간이나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 인근 수영장 등 놀이시설에서 수영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등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여름 피서철 물놀이를 가게 될 경우에는 보호자나 성인이 반드시 따라가 살펴보는 것이 사고를 막는 길이다.

▲문인태·신안군 지도읍 목포경찰서 지도파출소장

초등학생에 맞는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숙제 내줘야

초등 학교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다. 과학상상화·불조심 포스터·교통안전 포스터·나무심기 포스터 그리기 등이다.

요즈음 한창 진행중인 행사가 과학상상화 그리기다. 그런데, 10년 아니 20년 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6월달만 되면 6·25가 뭔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무작정 숙제를 받아와서 그림을 그려 제출하기도 한다.

초등학생들이 인터넷으로 게임을 하고, 각종 외국어와 학습 자료를 받아보는 등 매일 최신 정보들이 인터넷으로 올라오는 상

황에서 어떻게 교육내용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지 모르겠다.

학생들에게 좀더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그림을 그리게 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미술시간에 주제를 선택하고 내용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한 뒤 학생들에게 그림을 그리도록 시켜야 한다. 그림 주제도 다양하게 택했으면 한다.

숙제를 받아와 아무 생각없이 앉아 있는 아이들이 없으면 한다.

▲최계숙·광주시 남구 원산동

장애인 위한 저상·준저상 버스 턱없이 부족하다

얼마 전 시내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버스가 정류장에 선 뒤 한동안 움직이지 않아 내다보니 두 다리가 불편한 장애 노인이 버스 계단을 오르지 못하고 있었다.

때마침 지나가던 행인들이 노인을 태운 뒤에야 버스가 출발했다.

광주시내에도 계단이 없는 저상 버스가 운행중이다. 하지만 노선도 많지 않고 턱없이 부족해 이용하기 힘들다고 한다.

또 굴곡 구간이 많고 경사도가 심한 도로

사정도 무작정 저상 버스를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더라도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대책은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신임 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을 위한 저상·준저상 버스가 많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

▲배나현·광주시 북구 장등동

無等鼓

훌륭한 과학자이자 엄청난 부자였지만 과묵하고 삭막한 성격의 알프레드 노벨이 왜 평화상을 제정했을까. 이 면에는 베르타 폰 주트너(1843~1914)란 이름의 여성이 있다.

주트너는 오스트리아 명문 출신으로 훗날 평화주의자로 이름을 날렸다. 그녀 또한 부유한 귀족 출신이었지만 잘못된 결혼은 그녀를 빈털털이로 만들었다.

빈 거리를 배회하던 그녀에게 여비서를 찾는 신문 광고가 눈길을 끌었다.

똑똑하고 교양있는 여비서를 찾던 사람은 '악마의 상인'이란 오명으로 불리우던 다이 나이트 발명왕 알프레드 노벨. 그녀는 이 때부터 노벨의 눈과 귀가 됐다.

노벨이 과학 분야 외에 평화상을 추구한 것은 주트너의 조언이 결정적이었

다. 노벨이 죽기 4년 전인 1892년, 주트너 부부는 만년의 노벨을 취리히에서 만났다. 노벨은 노벨상 제정 사실을 주트너에게 귀띔했다. 주트너는 과학 분야 외에 평화 부문을 하나 더 첨가하

고 조언했다. 전쟁의 비참함을 고발한 행동주의적 평화주의자로 명성을 날리고 있던 그녀는 '기계시대' '무기를 내려 놓으시오!' 등 저서를 내놓으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노벨은 그녀의 약속을 지켰다. 노벨은 주트너의 조언대로 유언장에 평화상을 노벨상의 한 분야로 집어 넣었다.

1901년 첫번째 노벨 평화상은 적십자사를 창설한 앙리 뒤낭과 국제평화연맹을 창설한 프레데리크 파시에게 돌아갔다. 주트너 자신도 1905년 평화상 수상자가 됐다.

지난 16일부터 광주에서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가 열렸다. 김대중 전 대통령 등 5명의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7개 단체 대표가 참가했다. 그 결과물은 '광주 선언'. 참가자들은 '광주 선언'을 통해 지구상의 평화와 화해의 원칙을 천명했다. 실효성 없는 선언이지만 인간·평화를 위해 평생을 바친 이들의 선언이 심금을 울린다. /오주승 정치부장 js0h@kwangju.co.kr

노벨 평화상



나주 혁신도시 기본구상안에 대한 소고

으로 인해 지구계(地畵界)라고 하는 도시의 규모와 경계조차도 확정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국지도 58호선이 도시 중앙부를 관통하여 분절된 도시로 계획되어 있었고, 단지 내 도로도 전원일몰적인 격자형 도로망을 계획함으로써 혁신도시를 그저 삭막한 콘크리트 덩어리로 만들고 말 것이라는 불안함을 감할 수가 없었다. 또 평탄한 분지라는 나주의 지형적인 특성상 우수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인공조림 및 친수공간(親水空間) 조성 및 불가피한 예도 오히려 타 지역보다 낮은 녹지율을 계획하였고 친수공간은 그나마 찾아보기 힘들었다.

혁신도시 후부지 인근에 위치한 혐오시설인 광혜원과의 공간적 격리방안과 공간 단약과 및 전과감시구 등 개발 장애시설 주변에 대한 효율적인 공간 활용방안 등도 고려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2개의 광역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자녀들을 위한 혁신적이며 자족적인 교육환경을 갖춘 미래형 교육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단지 내에 지역난방설비와 쓰레기 소각장, 그리고 수목장이나 산골이 가능한 매모리얼 파크 등을 설치하여 향후 도시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에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어디 그 뿐이랴? 하나의 도시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역사(大役事)다. 근현대사를 통해서 국내·외에 신도시 건설의 성공과 실패 사례도 다양하다. 혁신도시 건설은 삶의 터전을 만드는 중요한 일이다.

충분히 연구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함으로써 말로만이 아닌 명실상부한 '명품도시'를 만들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혹 지역주민들께서 '이전기관이 너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지 않나?'하는 오해는 없으시길 바란다.

<한국전력거래소 신사옥추진팀장>

자동차 휠캡 장착시 고정식으로 만들어야 사고예방

도로를 운행 중에 급커브 지점 부근에 '휠캡'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 고속 주행 차량의 바퀴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휠캡이 바퀴에서 분리되는 주된 이유는 휠 캡의 경우 고정식이 아닌 손으로 눌러서 끼우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도로사정이 안좋은 우리의 경

우 바퀴가 받는 충격으로 휠캡이 잘 빠지는 데다 달리는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휠캡이 이 뒤따르는 차량에 부딪히면서 바퀴에 핑크를 내는가 하면 자치 사고 위험도 높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휠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박성만·광주시 동구 운림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and website.